

# 인문사회 융합부전공 탐방 ONLINE FAIR 참가후기

20170231 기계공학과 이효인

안녕하세요. 기계공학과에 재학중인 이효인입니다. 지난 목요일, 막막한 진로 고민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기대를 품고 인문학부 융합부전공 페어에 참가하였습니다. 학생들 중에는 본인의 관심 분야가 있어서 이미 과감하게 융합부전공을 시작한 친구들도 있지만, 저는 이 과정이 실제로 저에게 변화나 경쟁력을 가져다 줄 지 알고 싶었습니다. 즉 수강 요령이나 실용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기 보다는, 인문학부 교수님들께서 융합부전공에 대해 어떤 견해와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지 들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평생에 걸쳐 인문학, 사회학을 공부하신 분들께서 판단하시기에 공학과 인문학이 합쳐져 정말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기대하시는지, 공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인문학을 조금 더 공부하는 것이 정말 경쟁력 있는 일인지 궁금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어떻게 보면, 저의 궁금증은 모두 취업과 연계된 것들이기도 했습니다. 교양 과목을 많이 듣느라 전공 과목의 성적이 떨어지면 누군가 알아줄까? 이 학교를 졸업한 뒤에 취업 또는 커리어에 보탬이 될까? 저는 오로지 그런 생각밖에 하지 못하는 그릇이 좁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고등학생 시절을 돌아보면, 인문학, 사회학, 과학에 두루 관심이 있었고, 이것저것을 마음 가는 대로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에 진학한 이후부터 전공 공부를 남들만큼 해내기 위해서는 관심있는 다른 공부를 함께 하는 것이 과분한 욕심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여유를 갖지 못하고 단조롭게 학과 커리큘럼만 따라 수업을 들어왔는데, 별로 즐겁게 공부하지 않는 저를 발견할 때면 슬프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때때로 주변 동기들은 척척 해내는 것처럼 보였고, 누구에게나 힘든 길 위에서 저만 불평하고 있는 것일까봐 참았습니다. 학과 대부분이 대학원에 진학하는 현실 속에서 대학원을 가거나, 대기업에 전공을 살려 취직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을 가는 것은 낙오자 또는 낭만주의자처럼 느껴졌고, 공학과 인문학을 융합한다는 것도 허상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시 설명회 이야기로 돌아가보면, 이런 저에게 인문학부 온라인 페어는 학교로부터 다른 기회를 둘러보라는 격려를 듣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네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말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융합부전공을 단지 하나의 스펙으로 보았던 저의 생각이 정말 좁은 생각이었음을 뒤늦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교수님들께서 설명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자료와 문맥과 세상을 읽는 해독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인문학 공부가 저에게 필요하며,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닐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현재 3 학년 말이고, 앞으로 졸업하기까지 세 학기 정도가 남았습니다. 융합부전공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부지런해야만 하고, 세가지 부전공 분야가 모두 조금씩 저의 흥미를 담고 있어 한가지를 빨리 정해서 집중해야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과를 해야할까 고민하던 2 학년 말에도, 매 학기 수강신청을 할 때에도, 제가 들여야 하는 시간과 노력의 양만 저울질하고 솔직한 마음 속 궁금증은 무시한 채로 포기만 반복해 온 저에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고민이 무엇이며 제가 채워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힌트를 얻었다는 점에서 무척 의미 있는 두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나만의 길을 걸어본다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일까요? 저는 여전히 제 전공에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잘 나오지 않는 성적으로 인한 실망감과 한정되어 보이는 진로 때문에 도망치고 싶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좀 대범한 마음가짐으로 폭 넓은 공부를 해나가면서 제가 배운 것을 가치 있게 쓸 방향을 모색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